

2014. 8. 26. (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 민생경제팀 강길성 팀장 (02-731-2420), 홍보배 연구원 (2421)

안전산업 관련 기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 - 안전산업 투자 활성화 정책 관련 현장의견 수렴 -

국민경제자문회의는 '14.8.13일(수) 현정택 부의장을 비롯한 자문위원들이 경기도 용인시 소재의 안전산업 관련 제품개발 업체인 '맥스포'를 방문하여 관련 기업인, 재난안전기술원, 산업연구원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갖고 안전산업의 현황 및 활성화 정책방안 등에 관하여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는 먼저 국민이 주체가 되어 재난안전 부문에 참여하는 '한국형 국민 참여 거버넌스' 체계 설립의 중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어서 사회기반시설을 중심으로 한 안전투자 확대의 필요성이 강조되며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이 내재된 지능형 시설물, 센서를 활용한 위기관리 시스템이 예시로 제시되었다. 또한 안전과 관련된 부분의 법제화, 관련 정보에 대한 공개 확대 및 안전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 투자 확대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특히 지능형 재난안전 솔루션 개발을 확대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안전과 관련된 법·규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공감대도 형성되었다. 한편 한국과 일본의 재난통신 산업 현황을 비교하며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국내의 산업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자문위원들은 썩크홀 문제에서 볼 수 있듯이 직접적인 피해가 없을 때에는 국민의 안전에 대한 예방 의식이 낮은 점을 지적하며 예방이 실질적으로 사고를 막았다는 실제사례의 여론 홍보를 통하여 국민의 안전 예방의식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